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최규*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클락공항에서 한 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산 중간에 위치하다보니 주위가 조용하긴 하지만 아침에 새가 우는 소리가 나서 아침에만 좀 시끄럽습니다.
수업	수업은 8시부터 시작하여 5시까지 50분 수업과 10분 쉬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레벨테스트를 본 후 그룹 배정을 받게 됩니다. 저희의 경우 20명이 갔기 때문에 5명씩 4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총 8개의 수업 중 1:1시간은 3개이며 나머지는 그룹수업입니다. 1:1수업과 그룹 수업 모두 speaking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사분들은 모두 착하시고 영어로 설명을 잘 못해도 잘 알아들으십니다. 보통 매일 숙제를 내주시는데 집중해서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수업 준비로는 특별히 무언가를 챙길 필요는 없고 책과 펜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수업은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문법은 책을 읽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강사분들이 친절하기 때문에 수업도 지루하지 않고 재밌습니다.
Activity	장마시즌이라 많은 Activity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요트와 카마얀 비치에 갔습니다. 요트는 교통비와 팁을 포함하여 1000페소 이상을 사용한 것 같고 카마얀 비치는 150페소 사용했습니다. 요트는 4시간짜리를 타서 스노우쿨링도 할 수 있었고 재밌었습니다. 한국에서 못하는 경험을 여기서 싸게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카마얀 비치는 풍경이 예뻐했습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장마시즌이라서 비가 자주오고 천둥이 자주 칩니다. 비가 자주오기는 하지만 길게 오지는 않습니다. 날이 좋은 날에는 햇빛이 강하니 선크림도 꼭 가져가셔야합니다.
안전	수빅은 안전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달동안 머무르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돈을 달라고 오는 아이들이 있지만 거절하면 더 이상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 시설은 깨끗하며 일주일에 3번 청소해주시고 3번 빨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규칙상 외박은 불가능하며 대체적으로 조용한 편입니다.
식사	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기타() 아침에는 빵이 나오거나 한식이 나오고 점심 저녁은 한식이 나옵니다. 저녁시간이 이른 편이라 밤에 배가 고프기도 합니다.
교통	주로 FB나 택시를 타고 다녔습니다. FB는 13페소이고 택시는 콜택시의 경우 200페소 숙소로 돌아갈 때는 120페소였습니다. 평일에는 FB가 자주와서 불편한 점을 없었지만 주말에는 두 세시간에 한 번씩 있어서 교통에 불편함이 약간 있습니다. 콜택시도 부르면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 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생활비(교통비, 식비, 기념품비 등)	300,000	
합계	1,066,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비가 언제 올지 모르니 우산 꼭 챙기시고 선크림도 꼭 넉넉히 챙기세요.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에 가면 물이 바뀌서 설사를 하기 때문에 설사약 꼭 챙기세요.
간단히 선물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수업이 8개이기 때문에 기본8개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때문에 넉넉히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환전할 때 단위가 클수록 좋으니 되도록 100달러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산이다 보니 벌레가 많습니다. 벌레에 대책할 방법을 생각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 안에서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에 사전이 없는 분은 전자사전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방안에서 항상 에어컨을 틀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외투를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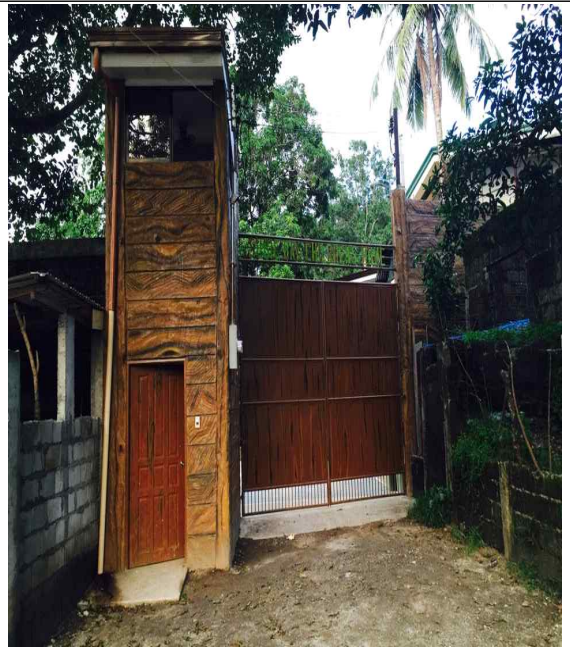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내 생각과는 다른 모습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다.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그 곳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 영어실력이라던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즐거웠던 기억도 많다.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 곳에서는 길게만 느껴졌다. 타지라서 그런지 쉽게 지치고 우울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한 달은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이것, 저것 해보지 못한 아쉬움만 남았다.
처음에는 영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긴장하고 부담감도 느꼈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잘 이끌어주었기 때문에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는 못해본 체험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
아마 내가 다시 개인적으로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면 이곳으로 오고 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요트



고아원 봉사활동



마닐라 투어



카마얀비치



카마얀 해변



카마얀 해변